

산드라 유라 리 : 굽이 사이
Sandra Eula Lee : Two waters

＊
Pool
풀

2011 풀 프로덕션 “횡단” 시리즈
2011 Pool Production “Transvers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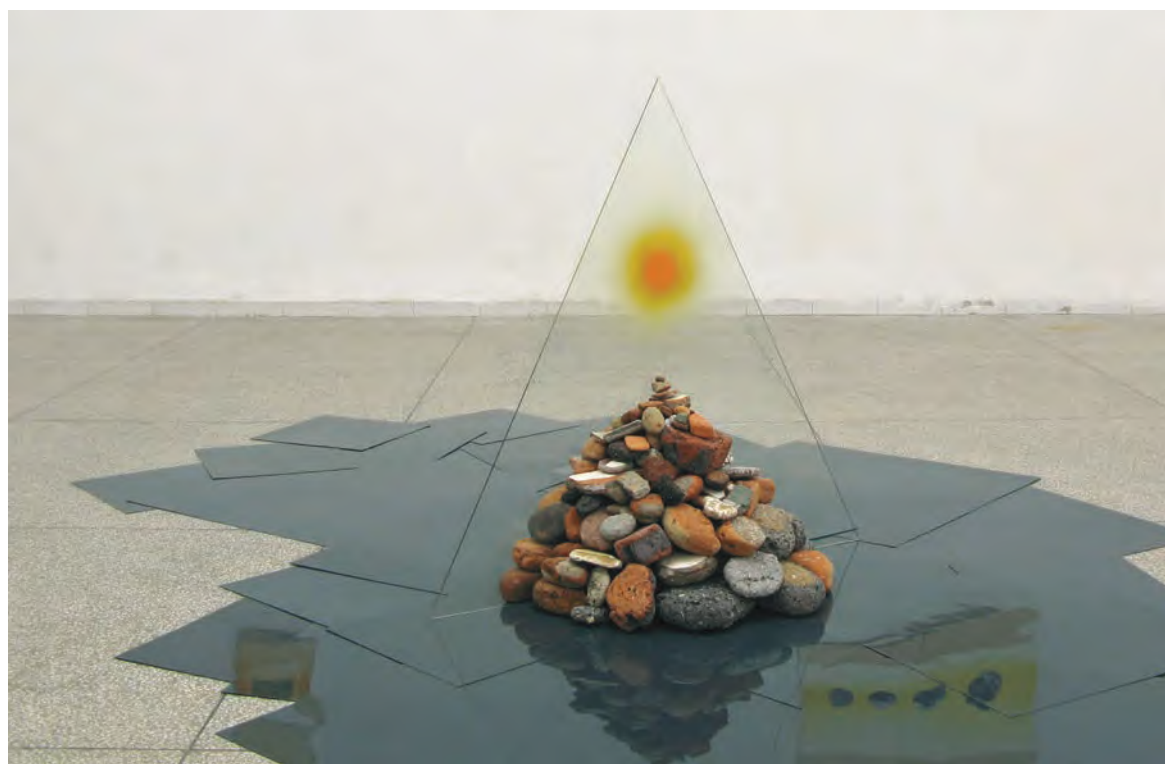
2011. 06. 24 - 07. 24
June 24 - July 24,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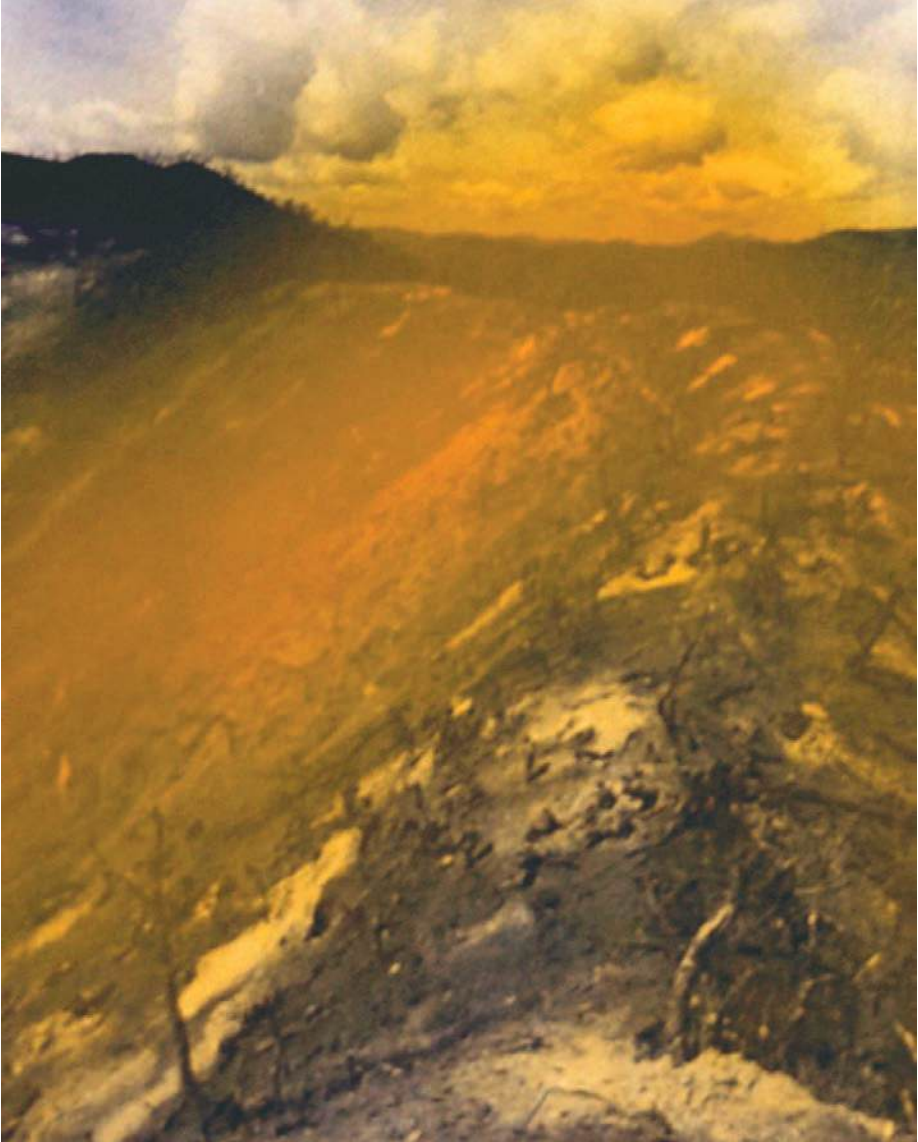
아트 스페이스 풀
art space Pool

개막 06. 24 금요일 오후 6시 아트 스페이스 풀
Opening reception Friday, June 24, 2011, 6:00 PM, art space pool











이미지

표지

〈야생 정원의 씨들〉, 2009

부분, 고양시 건설현장에서 수집한 재료들, 주변 이웃 정원의 색채를 이용한 채색, 가변크기

1쪽

〈두 가지 물길〉, 2009

전시장면, CEAC, 샤먼, 중국

2쪽

고란사, 한국

3쪽

〈산산〉, 2010

풍화된 건설현장 벽돌자재, 유리판, 스프레이 페인트, 아크릴판, 채색, 가변크기

4쪽

〈산등성이〉, 2010

부분, 나무 판넬 위에 사진 부착, 스프레이 페인트, 45x30cm

5쪽

〈부소산에서의 전망〉, 2010

나무 판넬 위에 사진 부착, 채색, 45x61cm

17쪽

샤포웨이, 샤먼, 중국

18쪽

〈두 가지 물길〉, 2009

전시장면, CEAC, 샤먼, 중국

19쪽

〈유동하는 정자(亭子)〉, 2010

목재, 나무의자, 샤먼 해안가에서 수집한 돌, 유리판, 채색, 가변크기

20쪽

〈연기(煙氣)〉, 2010

사진, 나무 판넬, 스프레이 페인트, 채색, 45x60cm

21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

용타이, 중국 / 백마강, 한국 / 소쇄원, 한국 / 인왕산, 한국 / 샤먼, 중국 / 쑤저우, 중국 / 용딩, 중국 / 헤인사, 한국

22쪽

백마강, 한국 / 타이후, 중국 / 쑤저우, 중국 / 쑤저우, 중국 / 헤인사, 한국 / 부소산, 한국 / 고양, 한국(사진촬영 보조: 김은경) / 통리, 중국

뒷표지

담양, 한국

Image

Cover

Seeds in a wild garden, 2009

Detail. Materials collected from local construction sites in Goyang, South Korea, paints in colors of neighborhood gardens. Dimension variable.

Page 1

Two waters, 2009

Exhibition view at CEAC, Xiamen, China

Page 2

Goransa, South Korea

Page 3

MountainMountain, 2010

Sea-weathered construction rubble, glass pane, spray paint, acrylic sheets, paint. Dimension variable.

Page 4

Ridge, 2010

Detail. Photograph mounted on wood panel, spray paint. 45x30cm.

Page 5

View from Busosan, 2010

Photographs mounted on wood panel, paint. 45x61cm.

Page 17

Shapowei in Xiamen, China

Page 18

Two waters, 2009

Exhibition view at CEAC

Page 19

Floating Pavilion, 2010

Wooden materials and chairs, collected bricks and rubble from the seashore of Xiamen, China, a glass plane, paints. Dimension variable.

Page 20

Smoke, 2010

Photographs, wood panel, spray paint, paint. 45x60cm

Page 21 (L to R, by row)

Yongtai, China / Bengmagang, South Korea / Soswaewon, South Korea / Ingwansan, South Korea / Xiamen, China / Suzhou, China / Yongding, China / Hyeinsa, South Korea

Page 22

Bengmagang, South Korea / Taihu, China / Suzhou, China / Suzhou, China / Hyeinsa, South Korea / Busosan, South Korea / Goyang, South Korea (Photograph assisted by Kim Eunkyung) / Tongli, China

Back cover

Damyang, South Korea

산드라 유라 리 : 굽이 사이

2011년 폴 프로덕션 두 번째 전시이자 국제교류 '횡단' 시리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산드라 유라 리의 개인전 《굽이 사이 Two waters》(06.24-07.24)입니다. '횡단'은 정략적 문화교류를 지양하고, 경계 너머 공식과 비공식 사이의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생각들의 연결지점을 찾고자 기획된 국제교류 프로젝트 시리즈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변화된 한국과 중국의 '정원' 풍습과 풍경을 탐색하고 재구성” *하는, 작가 개인의 프로젝트이기도 한 'Two waters'는 한국 고양, 서울-중국 샤먼(Xiamen)-미국 뉴욕의 3개 지역을 넘나들며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길'이라 번역될 수 있을 Two waters는 본 전시에 맞추어 '굽이 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굽이”는 시냇물, 강, 바다와 같은 waters을, “사이”는 그 물굽이들이 존재하는 경계로써의 two를 우회적으로 함축합니다.

산드라 리의 '정원 만들기'는 자연에 대한 소재적, 명분적 접근이 아닌, 인간이 형성해가는 삶의 형태라는 사유에서 출발합니다. 작가에게 이 변화하는 풍경들은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들의 조합으로써, 역사, 비역사, 기억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 주고, 풍경 안에서 “정원을 인간이 우리 주변환경을 향한 감정과 태도를 반영시켜야 하는 표현과 그 잠재된 가능성의 한 형식으로 인식” 합니다. 정원은 “자연 안에 유한한 것으로써,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그 구성 요소들과 인간이 서로 짜맞춰지기도 하고, 보듬어 지기도 하고, 때론 다음 사람에 의해 돌봐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궁정 정원에서부터 수행이나 피정(避靜)의 장소, 산 위의 돌무덤에서 창문가 화분들까지, 각각의 정원들은” 인간에게 자연 세계로 향하는 그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산드라 리는 이처럼 세계를 향한 “생각과 표현의 그릇으로서 기능하는 정원의 특별한 능력” 에 주목합니다.

뉴욕 브록클린 보태닉 가든 레지던시에 체류할 당시 정원에 대해 조사하던 산드라 리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의 관계망에서 정원을 고찰한 이론가, 케네스 헬판드(Kenneth Helphand)를 발견했습니다. “헬판드는 그의 저서 『저항하는 정원들(Defiant gardens)』에서 살아내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원이 만들어질 때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논합니다. 정원 만들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조건들 속에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돕습니다. 헬판드는 전쟁 기간 동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정원들에 주목하는데, 이는 고통 받는 풍경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자발적인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괴된 풍경 속에서 정원이 부여하는 자생적 삶의 형태에 대한 탐구가 바로 산드라 리의 미술언어를 형성합니다.

산드라 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오브제들, 발견된 질료들, 사진, 그리고 드로잉을 통해, “한국, 중국, 미국에서의 여행, 대화, 경험으로 형태 지어진 일종의 반영의 공간”으로 정원을 구성합니다. 이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중 사진 시리즈에는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과 같이 미국, 프랑스, 북한, 중국의 사상자 수가 최고를 달하며 모든 생명의 징후가 마멸되었던 격전지”가 자리합니다. 한국 신문지를 손으로 찢어 붙인 〈깊은 물(태평양)〉은 풍경 속 “분열의 메아리들과 사이의 공간을 개념적인 동시에 형식적인 지점에서 작동”하게 합니다. 〈산산〉은 샤먼 해안가에서 수집된 풍화된 돌더미들, 공사장의 파편들과 이 작은 돌산들을 분할하는 삼각형의 유리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산드라 리의 정원 전반을 아우르는 연못은 “한국과 중국의 풍경과 정원의 필수불가결한 물길”을 탐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 곳곳에 수록된 지역의 정원과 풍경 사진들, 두 명의 저자 이영옥과 시그르도어 굿먼드선의 글은 ‘정원 만들기’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조각나 있지만 서로 연결된 ‘연못’처럼 산드라 리의 정원은 파괴와 반영을 거듭하며, 문화양식(良識)을 망각하는 흐름에 대항(對抗)하고, 새로운 문맥을 향한 통로를 열어줍니다. ‘정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공동체의 발전과 개별 주체의 자유는 상이하게 인지되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이 현실에서 정원 만들기는 개별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영역들의 작동 가능성을 찾는 행위입니다.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타자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이 주제’ **가 바로 이 정원 풍경 안에 있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폴 큐레이터 김진주

* 이 글에서 등장하는 “ ” 안의 인용구는 모두 산드라 리 작가 노트(2011. 5. 원문: 영어)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상당부분 또한 작가 노트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사이 주제’는 문학평론가 이명원이 가라타니 고진의 주제와 타자를 해석한 개념으로, 타자성으로 귀속되지 않는 타자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반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주제형성의 한 표상이며, 황폐화와 단절로 인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포기할 수 없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명원, “‘사이 주제’로의 전환-주체, 타자, 새로운 주제형성에 대하여”, 『문화과학 61호』, 문화과학사, 2010.

Sandra Eula Lee : Two waters

Art Space Pool is pleased to present "Two waters" (June 24 – July 24) by the artist Sandra Eula Lee, the second solo exhibition of the 2011 Pool Production and the second program of its inter-local projects series "Transversal." Transversal is focused on the common context of knowledge and the solidarity of thoughts encountered and acted on through relationships of autonomous agents, in-between formal and informal and beyond the differences of local cultures.

"Two waters", an artist-initiative project centered on "researching garden traditions and landscapes altered by continual urbanization in South Korea and China," * has traveled for two years through three regions: Goyang and Seoul in South Korea, Xiamen in China and New York in the U.S. Alongside the project title "Two waters," it has a new Korean title, *Gubi Sai* (굽이 사이; between curves). Making a detour around its meaning, *Gubi* implies curves of water including streams, rivers, sea and oceans, or bodies of these waters; and *Sai* signifies two, as borders or thresholds exist between these bends of water.

Sandra Lee's gardening does not approach nature as items or obligations. From an attention to the form of living people can make, her seeds are scattered in the wild garden. "As a combin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elements, the landscape reveals much about history, non-history, and memory," she has "considered the garden as a form of expression and the potential it has to reflect attitudes and feelings we have towards our surroundings." Because, the garden is "ephemeral in nature, and intimate and personal in form; it's pieced together and cared for, sometimes handed to the next caretaker." A new way for humans to extend our grasp into our neighboring surroundings is opened through these varied and endless gardens, "from palace gardens to scholar retreats, from mountain rock piles to potted plants in windowsills." Sandra Lee placidly regards the "garden's special ability to act as a container for ideas and expressions."

During her residency in the Brooklyn Botanic Garden in New York, Sandra Lee encountered a theory on gardening in relation to societies, politics, cultures and economy by Kenneth Helphand. According to her, "in his book, *Defiant* gardens, Helphand discusses how the power of a garden can be even greater when created in inhospitable environments. Making a garden can help a person feel more at home, even in changing conditions. Helphand focuses on gardens made by humans during times of war as well as spontaneous growth that can transform the face of a stricken landscape." Connected to this view, she is composing her artistic contribution and investigation into the spaces of contemplation and self-sustainability a garden can provide.

Through handmade objects, found materials, photography, and drawing, she is constructing "an area of reflection shaped by her conversations, experiences and travels in South Korea, China, and the U.S." Photographs included in this exhibition "depict mountainous ridges where major battles occurred, such as Heartbreak Ridge, stripped of all signs of life, where U.S., French, North Korean, and Chinese casualties numbered high." "Echoes of division and the spaces between, run through the show both conceptually and formally," such as *Deep waters (Pacific)*, a large collage depicting the Pacific Ocean, created entirely from Korean newspapers torn by hand. *Mountain Mountain* comprises a large pile of sea-weathered rocks, construction rubble, bricks that were collected on the shores of Xiamen and divided by a triangular pane of glass. Informed by gardens in South Korea and China, a central element of the work can be found in the dark acrylic ponds, also a reference to "the major rivers and bodies of water integral to the Korean landscape, and it is similarly experienced in Xiamen which is a port city on the water." Photographs of local landscapes taken by her are accompanied in this publication by two essays, one written by Korean art critic Lee Young-Wook, and the other by artist Sigurdur Gudmundsson, providing distinct aspects on the surfacing process informing the concept of her gardening.

Like her fragmented and assembled "ponds," Sandra Lee's gardens break, create, and reflect the view, finding a new cultural context and resistance against absence of cultural common sense. In the area of gardening, territorie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s are not in opposition. In this wounded reality, gardening is an act of searching for the sustainable possibilities of spaces, independent and social. This re-enactment in her gardens reminds us of the in-between subjectives** who don't relinquish their own rights to make conversations with others despite fear and anxiety.

Art Space Pool Curator Kim Jinjoo

* The quotations marked into " " in this text are excerpted from the artist's essay dated by May, 2011. As well, many other parts of this text are indebted to it.

** The concept of the in-between subjectives on Karatani Kojin's idea of subjective and others is derived by a Korean literature critic Lee Myoung-Won. It is a signifier of a new subjective where others neither belong to the otherness nor a unified generality and cannot give up communication despite devastated lives and isolation. Lee Myoung-Won, *Turning to the in-between subjectives – On forming new subjectives, subjects, and others*, *Munhwagwahak* vol. 61, *Munhwagwahaksa* (Cultural Science Publishing), 2010.

풍경 - 상처 - 정원 만들기

이영옥 미술이론

1.

산드라 리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뉴욕에서였다. 지인과 함께 뉴욕 엘리자베스 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중 한 곳을 방문했는데, 마침 레지던시 참여작가였던 산드라 리의 작업실에 들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작업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상치 못한 느낌에 당황했었다. 뭐랄까, 60년대 한국 문화적 정경에서 감지할 수 있는 고색창연한 우아함 같은 것? 별달리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나는 뜨개질 용품, 음향기기 부품들, 그 밖의 일상 오브제들을 활용한 그녀의 설치 작업들 사이를 감아 도는 마치 달빛과 같은 흐름을 기억한다.

중간에 가끔씩 연락이 있었지만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2009년 그녀가 고양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서였다. 그녀는 부모가 태어나 자란 모국을 방문하여 새롭게 대면하게 된 많은 것들, 특히 여행을 통해 확인한 한국의 자연과 삶의 정경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래 계획했던 전쟁시기의 역사와 관련된 작업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변모된 자연과 삶의 풍경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그녀는 중국 샤먼(Xiamen)과 한국 고양과 서울, 미국 뉴욕에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오가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이번에 선을 보이는 정원 프로젝트다.

2.

오늘날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개발되어 아파트로 뒤덮여 버린 한국 땅은, 조금 과장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전 국토가 정원으로 뒤덮여 있던 곳이었다. 지리학자 이기봉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에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가 실상 모든 자연 환경이 정원과 같아서 따로 정원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쓴 적이 있다. 요사이도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지방을 여행해 보면 산과 들의 전망 좋은 곳마다 수많은 정자(亭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바로 이것이 자연 자체가 정원이어서 별다른 정원을 만들지 않고 정자만 세우면 정원을 대신할 수 있었던 우리의 자연 환경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3.

흔히 동아시아 문화 전통이 서구와 비교할 때 자연과의 긴밀한 연관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한다. 수궁이 가는 견해이기는 하지만 실상 그 실체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어디선가 ‘사유가 뿌리내리고 있는 풍경’인 ‘사유의 이미지’(Image de la pensée)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들뢰즈에 따르면 이 풍경은 모든 공간 지각의 배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면서, 한편으로 체험의 원초적 직접성을 제공하는가 하면 사유와 상상력의 기원적 영상으로 기능한다.

나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에서 들뢰즈의 사유의 이미지에 비견할만한 것으로 풍수 사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수사상은 땅과 물의 형상을 삶의 길흉화복(吉凶禍福)과 연관시켜 감지하는 지각체계이자 사유체계다. 이 사상은

흔히 길지(吉地)라고 지칭되는 이상적 장소를 표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 전통에서 사람들은 본능적 필요에 부합하며, 형이상학적 무한성을 포괄하는가 하면, 심미적 정취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러한 이상적 이미지에 따라 풍경을 보았다. 이 같은 이미지는 이미 이 곳 땅과 산수의 풍경 속에 잠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람들의 감각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4.

산수화 역시 이런 원초적 이미지가 구현된 것이다. 각각의 산수화에는 이 같은 이미지가 내재해 있었다. 다만 산수화는 예술적 구현체로서, 나름의 축적된 기법으로 이러한 원초적 이미지를 풍부히 하고 구체적인 출발점을 갖고 전개해 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이로써 세속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풍경들을 회상하고 그것에 깊이 침잠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결핍감에 시달리는 마음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흔히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요체가 현실 속에서 마음과 주변을 조용하고 화평케 하는데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산수화는 풍경의 이상을 사람의 마음과 연계시켜 삶의 이상으로 이끄는 매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5.

오늘날 이러한 원초적 풍경을 가능케 했던 문화적 매트릭스는 파괴되어 버렸다. 이상적인 이미지에 따라 풍경을 바라보는 예전의 지각방식은 미약해졌으며(아우라의 상실), 자연과 단절된 인공의 체계와 가상의 구축물들이 점점 더 우리의 일상 공간을 덮어 버리고 있다. 한편 급속한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자연이 대규모로 파헤쳐져 여기저기서 상처를 드러내고, 도로, 건축물들, 도시들이 기능적 필요에 따라 풍경을 가로지른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삶은 방향을 잃고, 나날이 분리, 파열, 부조화가 증대하는 듯하다. 부모의 고향인 이곳 한국과 중국에서 산드라 리는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원초적 풍경이 작동했던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그것이 파괴된 현실,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작동하고 있는 이곳의 삶의 현실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어떻게 기재되었을까? 나는 그녀가 정원을 프로젝트의 화두로 삼은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느낀다.

6.

내게 산드라 리의 정원 프로젝트는 이 변모된 풍경(풍경의 상처)과 대면하여 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그녀는 다양한 정원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그 정원들이 생성되는 문맥들을 탐구하며, 그 정원들이 내포한 다채로운 차원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원 개념을 확장하여 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7.

그녀의 정원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원’들을 선보인다. 그녀가 찍은 사진 속의 이미지들 속에서 우리는 전통 정원, 풀이나 꽃들이 담겨 창가나 길가에 놓인 화분들, 절 한 귀퉁이 사람들이 쌓아 놓은 돌무더기들, 그리고 버려진 땅의 황폐한 환경을 비집고 돌아난 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스스로 정원을 만든다. 〈야생 정원 속의 씨앗들〉은 그녀가 고양시의 건설 현장에서 발견한 폐석, 토막 난 철근, 잘라진 PVC 파이프, 벽돌, 작업용 장갑, 비틀린 철사, 구부러진 못, 노끈들을 모아 쌓아 놓은 정원이다. 이

녹색의 정원 위로는 마치 풀밭 위에 야생화가 피어난 듯 노랑, 빨강, 분홍, 보라, 주황색의 못 조각들과 벽돌 파편들이 흩뿌려져 있다. <두 가지 물길>과 <산산>은 연못 정원을 연상시킨다. 질푸른 색의 아크릴 판이 겹쳐져 생겨난 연못 위에는 마치 작은 섬들처럼 소(小)정원이 놓여있다. <산산>은 중국 샤먼의 바닷가에서 그녀가 발견한 돌들, 수없이 씻겨 자갈처럼 둥글게 되어버린 벽돌 조각들로 이루어진 작은 산을 보여 준다. <두 가지 물길>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한 작은 철제 가건물 그리고 두 개의 의자를 결합시킨 건축물 각각의 내부에 역시 조그만 산들이 위치해 있다.

8.

그녀의 정원 만들기는 민초들의 생활 정원 만들기 전통에 닿아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혹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욱 사람들은 정원을 만든다. 곧 화분과 돌무더기, 야생의 풀밭으로 이루어진 정원들은 열악한 삶의 환경을 이겨내려는 생명의 치유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녀가 정원조성에 활용하는 재료들은 아름답고 이상적인 정원의 경관 조성에 쓰이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현실 생활로부터 나온 파편들, 그것도 인공적 건축물들을 세우는 건설 현장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는 벽돌 파편이 무한히 파도에 씻겨 둥근 모습을 이루듯, 열악한 환경 속의 열악한 재료들이 자연과 맞닿아 생명, 그 치유의 힘을 되살리기를 기원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우선 자신의 손으로 이들 상처 난 재료들을 하나씩 그러모은다. 그리고는 그것들에 색칠을 하거나, 위치를 부여하거나, 한 곳에 쌓거나 하여, 하나의 장소를 만든다. 조그만 산, 작은 연못, 작게 쌓은 탑……

9.

동아시아의 전통 정원이 이상적인 풍경을 추체험(追體驗) 할 수 있게끔 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균형,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은 몰입과 자각, 성찰과 향유를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심적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하지만 산드라 리가 조성한 정원은 향유와 몰입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성찰과 자각을 요청하는 듯하다. 정원은 열려 있으며, 조그만 산들과 탑들, 연못이 이루는 정경은 일견 잠정적이며, 무심하다.

하지만 이 정원들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이에서 모든 간극을 메우려는 잔잔한 열망이 이끌려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녀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 신문지를 찢어 붙여 태평양을 형상화한 콜라주 작업 <깊은 물(태평양)>이 있다. 나는 그 ‘깊은 물’이 마치 그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확장하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Landscape - Wound - Making a Garden

Lee Young-Wook Art Critic

1.

It was 2002 when I first met Sandra Lee in New York. I was visiting the Elizabeth Foundation artist-in-residence program with a colleague of mine and she was there as 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n the program. While looking around her studio, I was confused by an unexpected sensation; her works emitted such a classic, elegant and quiet atmosphere that brought my sentiment back to the 1960s in the cultural scene of South Korea. We didn't have a chance for dialogue at the time, but I still remember a sense of flow like moonlight, which surrounded the installation out of her everyday objects: knitting tools, audio parts, etc.

Since then, I kept in contact with her until 2009 when she came to Korea for the Goyang artist-in-residence program. She talked then about the new encounters she was having with her parents' homeland, especially about the scenes of nature and life she could collect and identify through her travels. During that time, her initial interest in the wartime history was shifting to include scenes of nature and life undergoing change in South Korea. It was soon after that she began developing this project, continuing over several artist-in-residence programs in Goyang and Seoul in South Korea, Xiamen in China and New York in the U.S. So, for this time we can take a look at the pervasive questions within her Garden Project.

2.

It cannot be exaggerated that the land of Korea was covered by gardens in the not so distant past. Nowadays this landscape has been torn up, overdeveloped and overspread with apartment buildings. Lee Gi-bong, a Korean geographer once remarked that Korean gardens were fewer in numbers than Chinese or Japanese gardens because the beau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Korea composed gardens without any artificial arrangements. While each garden culture has unique features, Korean gardens were rather naturally merged with an undulating, irregular and asymmetrical nature. In addition to this natural condition, there were numbers of *JungJa* (정자, 亭子, Korean style pavilion) for enjoying and appreciating the surrounding views. Even recently, alongside the highways in Korea we often find the *JungJa* positioned at varied spots with its own view of the mountains and meadows. Derived from the gif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JungJa* served as places of relaxation or enjoyment in either a cultivated garden or a natural area.

3.

It is a common idea that the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 has a more intimate connectivity with nature than the Western world. Convincing but also vague, the idea leaves us a few ambiguities in relation to the real. Gilles Deleuze questioned "the landscape taking root on thought," what he refers to as the concept "*Image de la pensée*." According to Deleuze, the landscape is immanent as the flux of sensory, bodily and lived experience within every space. This is the landscape that gives us a sense of immediacy as a pure and primordial experience. However, because this experience is in the region of non-belonging, the horizon of something transcendent is reestablished, and the landscape functions as the passive synthesis of imagination and thought.

I believe that the concept of "*Feng Shui* (풍수, 風水; geomantic principles)" in the East Asian tradition is what could be comparable with Deleuze's *Image de la pensée*. *Feng Shui* is the system for perceiving the shape of earth and water in an engagement with the four signs of life's fortune (길흉화복, 吉凶禍福; propitiousness, ominousness, evil and luck). The concept of *Feng Shui* is the immanence in the representational world of the ideal image that is the so-called "favorable land (길지, 吉地; propitious site)". In the East Asian tradition, people see the landscape through this ideal image, which corresponds with an instinctive necessity in search of tranquility, embraces the infinite

metaphysical imagination and embodies the aesthetic achievement. Thus, the immanence of the ideal image has operated within the landscape as well as our perception.

4.

Asian landscape painting is another example of embodying the primordial image. The image is immanent in every landscape painting. As an artistic representation, landscape painting has flourished the idea of the primordial image by using its own accumulated technique, processed with concrete contexts in reality. The audience or people who struggle in their mundane world therefore recall and withdraw into the landscape to soothe their tiredness, imbalance and instability of mind. The cardinal importance of the East Asian tradition is often understood as comforting, harmonizing and calming one's mind and surroundings in the real world. On this account, Asian landscape painting can be defined as a catalyst that interlinks the ideal status of the landscape with the human mind to lead it into the ideal status in real life. The same must go for gardening.

5.

The cultural matrix that possibly realized the East Asian primordial image has been destroyed these days. The old system of perceiving and sensing the landscape based on the ideal image has been weakened or changed (loss of aura). Far from nature, artificial systems and virtual construction are covering our everyday space. In the areas exposed to rapid development and continual urbanization, lands are torn up to build roads; structures and cities are crossing the landscape and revealing their wounds. Therefore, life within this landscape seems is getting lost, detached, and ruptured, lacking harmony from day to day. Sandra Lee, during her visits to her parents' homeland in South Korea and her travels in China, may have sensed these changes. How could all these elements be perceived and registered in her body and mind—the old East Asian tradition operated with the primordial landscape and the reality with its destruction, but nevertheless a deformed and operating system in the real world. I am sure that her choice of gardening as a topic for her project must be a natural move forward in her life.

6.

For me, Lee's gardening project, is about the practical research for finding a new possibility of gardening through her encounters with the changed and wounded landscape. Observing varied examples of gardening traditions, she researched contexts that constitute gardening, identified varied directions immanent in gardens, expanded the concept of gardening, and suggests new possibilities in her work.

7.

Lee represents varied kinds of "gardens" in this project. In her photographs, we can observe a traditional garden, potted plants in windowsills and roadsides, a pile of stones at a corner of temple and grasses grown in devastated land.

She also makes different kinds of gardens herself. In *Seeds in a Wild Garden*, she collects and piles found materials from local construction sites, such as rubble, bricks and chunks of concrete. Above this green garden, there are yellow, red, pink, purple and orange nails and brick fragments scattered just like wild flowers in the field. *Two Waters* and *MountainMountain* recall a pond garden. On the surface of this pond made with overlapping dark blue acrylic pieces, there is a miniature garden that seems like a floating island. *MountainMountain* contains a small mountain out of stones and brick fragments that she collected from the seashore in Xiamen, China. In *Two Waters*, there are small handmade building-like structures with a slate roof and two separated chairs. Inside of each frame, small mountains are placed.

8.

Her gardening links to the traditional gardening ways in the life of *Mincho*, grass roots people here. Despite inhospitable circumstances, or because of their toughness, they make a greater effort to make their gardens. Lee's gardens, composed with piles of stones and wild grasses, indicate the spontaneous healing process despite poor surroundings in our daily lives. The materials she adopts for her gardening aren't conventionally beautiful or ideal for gardening. They are rather fragments left over from our everyday lives and from our construction sites. As brick fragments worn away and refined by water, the poor materials from these environments that encounter such nature may be a prayer for healing for our lives.

Therefore, her performative practice includes the collecting of wounded materials, painting on the surfaces, putting the elements in certain positions, and piling them up towards creating a place. In this place there are small mountains, ponds, towers and so forth.

9.

As mentioned above, the East Asian traditional gardening was made for a kind of re-enactment of the ideal landscape and a practical way of finding peace, balance and stability for the human mind. The stability of mind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a very complex mental process including commitment, self-awareness, self-reflection and enjoyment. But Lee's gardening does not force either commitment or enjoyment. It rather requires self-awareness and self-reflection. Her garden is open. The landscape comprising small mountains, towers and ponds, in a way, is transitory yet detached.

Her gardening seems to invite a tranquil passion to emerge from our minds and fill all the rifts. As a part of this project, *Deep waters (Pacific)* is a collage created from pieces of Korean newspaper that visualizes the Pacific Ocean. For this time, I sense that the "deep water" is moving, deepening and expanding itself.

샤먼 CEAC에서, 《산드라 유라 리 : 두 가지 물길》

시그르도어 굿먼드선 작가, 암스테르담 라익스 아카데미 자문위원

어느 맑고 화창한 오후, 나는 산드라 리가 샤먼 공항에 도착한 뒤 그와 점심식사를 하러 만났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레지던스를 방금 마치고 온 직후였고, 그 당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역사와 사건들을 반영한 생각들로 인해 생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과 그 외곽에서 그녀가 경험했던 변화와 현재의 발전, 그리고 지난 수 십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샤먼(Xiamen)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산드라 리가 이곳에 온 것은 차이니스-유러피안 아트 센터(CEAC)의 레지던시에 3개월간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CEAC에서 선보인 그녀의 전시는 세계의 서쪽과 동쪽에 이르는 자신의 경험과 공유된 감각을 온전히 발화했던 자리였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란 산드라 리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미국, 특히 그녀가 기반을 두고 있는 뉴욕에서 심화시키고, 여러 전시를 통해 전개해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한국에 있는 레지던스들에 점차 체류하게 되었고, 중국을 때때로 방문했었다. 그녀는 CEAC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 남부 지방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는데, 이곳 해안도시들은 그녀의 최종 작업에 영향을 주었으며, CEAC 갤러리에서 선보인 의미심장한 설치작품인 〈두 가지 물길(Two water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샤먼은 예전부터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로써 CEAC가 자리한 샤먼섬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섬은 1950년대에 반도로 편입되었으나 지금도 바다로 둘러 쌓여있다. 산지가 근접해 있고 섬들은 시야에서 도드라진다. 산드라 리에게 이러한 풍경의 지배적인 특징들은 한국에서의 여행과 그곳에서 경험했던 풍경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러한 해안 경관과 반사하는 바닷물에 매료되었다.

또한 그녀에게 현실에서 불가피해져 버린 공사현장의 광경과 소리는 친숙한 것이었다. 샤먼 시내에서부터 산드라 리의 작업실 동네인 샤포웨이(Shapowei)에서도,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풍광들 속으로의 자동차여행에서도, 그리고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아파트 빌딩에서도, 공사현장은 일상 풍경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샤먼은 1980년에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이후로 거대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드라 리는 이 점에서 새로운 매번 새로운 공사현장이 생겨나고 이웃들과 공동체는 빠르게 바뀌어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샤먼의 공통된 특성을 보았다.

산드라 리는 〈두 가지 물길(Two waters)〉작품 제작을 위해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료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녀의 ‘정원’을 건축했다. 조각들, 소형 돌담불, 채색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검게 비추는 ‘연못’위를 섬과 같이 떠있는 산들은 전시장 바닥 위를 섬세하게 수놓았다. 이처럼 그녀의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미술언어는 온기를 자아내며, 나로 하여금 그 전시장을 찾을 때 마다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솔직한, 열려있음’이라는 기운이 작업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이것은 전시장 안에서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 같은 시를 생성하고 있었다. 산드라 리의 서정적인 감수성은 샤먼과 서울과 뉴욕에서의 그녀의 여정에 영향 받은, 순환들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상생활의 거친 질료들과 함께 뒤섞이고 있었다.

그 전시는 지역 보도매체의 여러 기사들과 대화로 이어진 해석, 열띤 호기심, 인정과 더불어 그녀의 작업을 바라본 미술인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강력하게 발언했다. 우리는 이러한 반향들에서 그녀의 프로젝트가 가지는 유의미함을 찾는다. 낯설고 친숙함 모두가 녹아있는 이 작가의 작업 화두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고 그것과 동질감을 느끼는 관객들의 경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을 말이다.

“Sandra Eula Lee : Two waters” at CEAC in Xiamen

Sigurdur Gudmundsson Artist, Advisor of the Rijksakademie, Amsterdam

On a sunny and clear afternoon, I met Sandra Lee for lunch soon after her plane landed in Xiamen. She had just come from a residency in Seoul and her thoughts were alive with reflections on the country's recent history and events. We talked of the changes and current developments she experienced in the cities and countryside, and of the changes Xiamen itself had undergone over the past decades. Sandra was here to join us for her 3-month residency at the Chinese-European Art Center (CEAC).

The exhibition that she held at CEAC spoke perfectly of her experiences and shared sensibilities from the West and from the East. Born and raised in America to Korean parents, Sandra developed and exhibited her work in the U.S. and has been based in New York. Over the past years she has made extended stays in South Korea on residencies, with frequent visits to China. Her stay at CEAC was her first visit to China's southern provinces and the coastal city's features could be felt in her final work here, an important installation in CEAC's gallery titled “Two waters”.

Formerly China's biggest port city, Xiamen includes Xiamen Island, where CEAC is located. The Island was made into a peninsula in the 1950s and is surrounded by the ocean. Mountains are nearby and islands are visible to the eye. For Sandra, these dominant features were reminiscent of her travels in South Korea, and the landscape she experienced there. She absorbed the coastal views and reflective waters.

Also familiar to her was the sight and sound of construction, which is unavoidable. From downtown Xiamen, to her studio neighborhood in Shapowei, to scenic drives outside the city, and in her own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was a part of the daily landscape. Xiamen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in 1980 and has seen massive redevelopment since that time. Sandra saw commonalities with her experiences in South Korea where new construction was consistently underway and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are also fast changing.

For her “Two waters” installation, Sandra collected industrial materials from local construction sites and used them to build her “garden”. Sculptures, miniature rock piles, and mountains floated as islands on dark reflective “ponds” created from painted sheets of acrylic carefully arranged on the floor. The ponds spoke to larger bodies of water, perhaps rivers or oceans that lie between. Her personal and inventive vocabulary created a warm, inviting space that continued to excite during my frequent visits to the show. There was an air of openness that surrounded the works, creating a beautiful musical poetry within the gallery. Sandra's lyrical sensibilities combined with the rough materials of daily life to tell a story of cycles, informed by her time in Xiamen, Seoul, and New York.

The show spoke powerfully to the arts community as well as the local community, who received her works with interested curiosity and recognition, an understanding relayed through many conversations and articles written in the press. Such a response demonstrates the relevance of Sandra's project and the audience's experience identifying with, and finding new meanings in her concerns—both foreign and familiar.













값 8000원



9 788996 567448

ISBN 978-89-965674-4-8

『산드라 유라 리 : 굽이 사이』

본 출판물은 2011 풀 프로덕션이자 국제교류 프로젝트 '횡단' 시리즈인
〈산드라 유라 리 : 굽이 사이 Two water〉(2011.06.24-07.24)와
연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발행, 포럼에이(아트 스페이스 풀 출판, 발행인: 김희진)

출간일, 2011년 6월 23일, 400부 한정 인쇄

언어, 한국어, 영어

저자, 산드라 유라 리(사진, 글), 아트 스페이스 풀 큐레이터 김진주,

이영욱, 시고르도어 굿먼드선

번역, 권진(이영욱: 영어), 김진주(한국어)

편집 및 감수, 김진주, 산드라 유라 리

디자인, 조지은

인쇄, 3P, 서울

본지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전재할 수 없습니다.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산드라 유라 리와 아트 스페이스 풀, 그리고 각
저자에게 있습니다.

Sandra Eula Lee : Two waters

This publication accompanies the exhibition 2011 Pool Production
Transversal Series "Sandra Eula Lee : Two waters"(June 24 –
July 24, 2011).

Published by Forum A(art space pool publications, publisher : Heejin Kim)

Published date June 23, 2011

Limited edition of 400

Languages in Korean and English

Photographed and Written by Sandra Eula Lee

Written by Art Space Pool Curator Kim Jinjoo, Lee Young-Wook

Sigurdur Gudmundsson

Translated by Kwon Jin(Lee Young-Wook: in English), Kim Jinjoo(Korean)

Edited and Text reviewed by Kim Jinjoo, Sandra Eula Lee

Designed by Cho Jieun

Printed by 3P, Seoul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a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s, Art Space Pool and Sandra
Eula Lee, and they retain copyright on their individual works.

© Sandra Eula Lee; Art Space Pool, Seoul

<http://sandraleestudio.com>

www.altpool.org



가격 8,000원.

Price 8,000 KRW. 8 USD. 8 Euro.